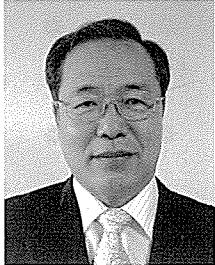


신고유가 시대에 CDM사업이 가지는 의미



손창식 CDM인증원장
에너지관리공단
yslee@kier.re.kr

지난 7월 14일 두바이산 원유가 사상 최고가인 배럴당 71.96달러로 거래된 후 줄곧 70달러 문턱을 오르내리는 초고유가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2006년도 유가전망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당초 예측치보다 10달러 이상 높고 작년 1월보다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운용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 급기야 우리나라 상반기 경상수지가 9년 만에 처음으로 2억7천만 달러나 적자기록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그 적자 기록의 중심에는 지난해보다 37.7%나 급등한 오일달러에 원인이 있다고 하니 에너지절약을 통한 오일머니의 축소는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검토할 때로 여겨진다.

이러한 신고유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BRICs 국가들의 경제급성장과 OECD 국가들의 소득 향상으로 석유소비는 여전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동정세가 여전히 불안 속에 빠져 있어 초고유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에너지시장의 여전 속에

“기후변화협약이행”이라는 국제환경규제 위협이 버티고 있어 에너지정책의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유가라는 귀족유가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2050년까지는 화석에너지의 역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담보된다면 에너지소비부문의 구조변화와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 그 동안 비관적으로 논의된 신재생에너지와 필요악으로 취급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중한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간파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기술에 대한 기여도를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 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이용 효율화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신재생에너지원의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보급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용연료를 천연가스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관리정책으로 원천적인 변경이 요구되며 넷째, 온실가스 처리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세계에너지시장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CDM사업이다. 작년에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이행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감축 사업이라 할 수 있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시작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전 세계 7개국 16개 인증기구에서 7월 말까지 252 개의 CDM사업을 UN에 등록하여 연간 7천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CDM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체계의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월 말 현재 5건의 CDM사업이 UN에 등록되어 있으며 추가로 4건의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신청한 상태에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풍력, 소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산업분야도 2건이나 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설비투자비용이 높고 운영경험부족 등의 위험부담도 있었으나 CDM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및 유지기술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 투자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에서 초고유가 상황의 지속은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면 에너지절약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피해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고유가의 귀족유가 시대에 찾아온 CDM사업은 새로운 인센티브제도일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간다면 작금의 신고유가 도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의사업으로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화석연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환경적 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앞에서 소개한 CDM사업에서도 찾 아보기를 기대해 본다.